

#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연구: 학년별 비교를 중심으로

안민정<sup>1</sup> · 강아연<sup>1</sup> · 김울아<sup>1</sup> · 김민지<sup>1</sup> · 김예림<sup>1</sup> · 김혜원<sup>1</sup> · 나예슬<sup>1</sup> · 황윤영<sup>2</sup>  
전남대학교 간호대학<sup>1</sup>, 서울여자간호대학교<sup>2</sup>

##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njeong An<sup>1</sup> · Ah Yeon Kang<sup>1</sup> · Yul Ah Kim<sup>1</sup> · Min Ji Kim<sup>1</sup> · Ye Lim Kim<sup>1</sup> ·  
Hye Won Kim<sup>1</sup> · Ye Seul Na<sup>1</sup> · Yoon Young Hwang<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2</sup>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compare the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by grade. **Methods:** The study is a descriptive comparative survey. The participants were 247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3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2$  tests, and analysis of covariance, using SPSS/WIN 21.0 program. **Results:** The stud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and stress according to their grade. The post-hoc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sophomores and juniors had lower academic engagement and higher academic burnout and stress than others (i.e., freshmen, or senio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support among nursing students. Academic engagemen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burnout and stress. Also, academic burnou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engagement and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nursing students in second and third grade were at risk of academic burnout and under severe stress. Therefore, sophomores and juniors need more attention and care to help them relieve and control stress and burnout and to improve their academic engagement. Also, the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plans and/or interventions for nursing students' major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Nursing students,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Social support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현재 자신이 누구이며 장

래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동시에 대학생은 학업 및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과 다양한 생활경험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1].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Corresponding author: Yoon Young Hwa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ro, Seodaemun-gu, Seoul 03617, Korea.  
Tel: +82-2-2287-1722, Fax: +82-2-395-8078, E-mail: hyy2115@hanmail.net

Received: Feb 12, 2017 / Revised: May 2, 2017 / Accepted: May 3,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 및 환자 간호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 실제로 간호대학생은 많은 양의 보고서 작성과 학업에 대한 부담, 지식 및 임상실무 경험의 부족 및 교수와의 관계형성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3]. 또한 학우 간의 배타적이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범위가 축소되며, 소외감과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간호대학생은 전공과목을 학습하며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과중한 학습량으로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며, 때로 학업성적으로 인한 상대적인 열등감과 간호학에 대한 회의를 경험한다[4].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없거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 불안을 경험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심한 경우 정신신체 장애를 유발하는 부적응 증상이나 불건강을 초래하게 된다[4]. 스트레스는 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삶의 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한 대학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1].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소진을 경험하며 학업성취도 저하되므로[5], 학업 스트레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소진은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만들며, 간호학 전공학습에 대한 위축과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6].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소진과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의 저하는 졸업 후 간호 업무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7,8],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진 정도를 낮추고 성공적인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학의 특성 상 간호대학생은 재학 중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학업 성취에는 특히 학습자 변인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으로서 학업열의와 학업소진 및 스트레스를 파악함과 아울러 사회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학년별로 대학생활 적응, 전공 입문, 임상실습, 취업 및 졸업 등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학습자 변인과 사회적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습자 변인과 사회적 변인을 조사한 연구

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업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이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일원량 분산분석을 위해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소-중간크기의 효과크기 .20 및 그룹 수 4를 기준으로 필요한 전체 최소 표본크기는 244명이었다[10]. 자료수집은 G광역시에 위치한 15개의 간호대학 리스트를 만들어 무작위 뽑기를 통해 3개의 간호대학을 선택하고, 3개의 간호대학을 방문하여 간호학과와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개 대학의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동일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이었으며, 휴학 중인 자, 만 19세 미만인자(연구참여일 기준), 최근 6

개월 이내 정신 질환 및 급성 내/외과적인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였으며, 연구 설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개별봉투에 넣어 이루어졌고, 연구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다. 표집오차를 고려하여 간호대학생 250명(학교별 82~84명, 각 학교의 학년별 20~21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미회수되거나 기록이 미비한 자료 3부를 제외한 총 247부를 자료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5천원 상당 문구류)을 제공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일반적 특성(나이, 성별, 학업성취도, 건강상태, 음주, 흡연, 학과적응) 7문항, 학업열의 17문항, 학업소진 25문항, 스트레스 50문항 및 사회적 지지 12문항으로, 총 111문항이었다.

#### 1) 학업열의

학업열의는 다양한 학업참여 관련 상황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Study & Well-being Surve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1]. 이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원저자에게 사용 및 한국어로의 번역 허락을 받은 후,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거쳐 5명의 학생들에게 가독성 예비연구를 하여 수정한 뒤,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Schaufeli 등[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2) 학업 소진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12]이 개발한 학업소진 도구(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바탕으로 Lee, Lee와 Lee [1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탈진, 무능력, 반감, 냉담 및 불안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 3)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도는 Chon과 Kim [14]이 개발한 도구를 Chon, Kim과 Yi [15]가 수정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문제, 이성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수와의 관계, 경제문제, 장애문제 및 가치관 문제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n 등[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정도는 Zimet 등[1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The Multidimensional Scal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Shin과 Lee [17]가 성인을 대상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및 주요 타인 지지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과 Lee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일반적 특성 및 학업 관련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네 집단의 일반적 특성비교는 일원량 분산분석 및 카이제곱분석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는 통제변수를 나이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NCOVA의 결과에 따라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IRB No. 1040198-160907-HR-079-03).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진행절차,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와 자료의 무기명처리, 비밀보장 및 연구참여 철회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서면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참여에 관련한 질문이나 연구참여 철회를 원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개별봉투에 담아 배포하였으

며, 완성된 설문지는 개별적으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고 3학년이 1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all  $p < .001$ ).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1.19세였고, 대부분이 여학생이었다(87.5%). 학년별 대상자 수는 1, 3, 4학년은 각 61명이었고, 2학년은 64명이었다. 학업성취도는 B에 해당하는 학생이 72.6%로 가장 많았고, C 이하와 A가 14.5%, 12.9%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72.8%에서 좋음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좋지 않음은 26.0%, 매우 좋지 않음은 1.2%였다.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흡연을 하지 않았고(97.2%), 83.9%는 음주를 하고 있었다. 학과 적응은 적응함 이상이 88.7%였고, 적응 못함과 매우 적응 못함이 각각 9.7%와 1.6%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나이만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 $F=16.89, p < .001$ ), 다른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나이는 사후 검정에서 4학년이 1학년보다, 4학년이 2학년보다, 그리

### 2.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학년별 차이

#### 1) 학업열의

학업열의의 전체 평균은  $48.82 \pm 14.56$ 이었고, 학년별로 1학년  $48.82 \pm 14.23$ , 2학년  $48.77 \pm 12.22$ , 3학년  $44.80 \pm 12.60$ , 4학년  $52.90 \pm 17.70$ 이었으며, 전반적인 학업열의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08, p=.028$ ). 사후 검정 결과 3학년이 4학년보다 전반적인 학업열의와 하부 영역 중 활기와 헌신 영역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Table 2).

#### 2) 학업소진

학업소진의 전체 평균은  $70.26 \pm 14.55$ 였고, 학년별로 1학년  $66.55 \pm 12.39$ , 2학년  $72.46 \pm 13.60$ , 3학년  $76.22 \pm 13.68$ , 4학년  $65.68 \pm 16.02$ 이었으며, 전반적인 학업소진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83, p < .001$ ). 사후 검정 결과 3학년이 1학년과 4학년보다 전반적인 학업소진 정도가 더 컸다. 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Grade

(N=2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Freshmen (n=61)	Sophomores (n=64)	Juniors (n=61)	Seniors (n=61)	$\chi^2$ or F (p)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range)	21.19±2.58 (18~31)	19.78±2.87 (18~31)	20.70±2.31 (19~31)	21.77±1.73 (20~27)	22.57±2.39 (21~31)	16.89 ( $< .001$ )
Gender	Female	217 (87.5)	55 (90.2)	52 (81.3)	55 (88.7)	55 (90.2)	3.16 (.368)
	Male	31 (12.5)	6 (9.8)	12 (18.7)	7 (11.3)	6 (9.8)	
Academic grade	A	32 (12.9)	9 (14.8)	11 (17.2)	5 (8.1)	7 (11.5)	5.69 (.465)
	B	180 (72.6)	45 (73.8)	40 (62.5)	49 (79.0)	46 (75.4)	
	C and lower	36 (14.5)	7 (11.5)	13 (20.3)	8 (12.9)	8 (13.1)	
Health status*	Very good	10 (4.1)	2 (3.3)	3 (4.7)	2 (3.3)	3 (4.9)	11.74 (.147)
	Good	169 (68.7)	44 (73.3)	45 (70.3)	34 (55.7)	46 (75.4)	
	Bad	64 (26.0)	14 (23.3)	16 (25.0)	24 (39.3)	10 (16.4)	
	Very bad	3 (1.2)	-	-	1 (1.6)	2 (3.3)	
Smoking*	No	239 (97.2)	61 (100.0)	61 (96.8)	60 (98.4)	57 (93.4)	4.43 (.180)
	Yes	7 (2.8)	-	2 (3.2)	1 (1.6)	4 (6.6)	
Alcohol drinking	No	40 (16.1)	9 (14.8)	10 (15.6)	11 (17.7)	10 (16.4)	0.22 (.981)
	Yes	208 (83.9)	52 (85.2)	54 (84.4)	51 (82.3)	51 (83.6)	
Academic adjustment	Well adjusted	33 (13.4)	3 (4.9)	5 (7.8)	18 (29.5)	10 (16.4)	10.65 (.100)
	Adjusted	186 (75.3)	30 (49.2)	49 (76.6)	32 (52.5)	44 (72.1)	
	Unadjusted	24 (9.7)	24 (39.3)	9 (14.1)	9 (14.8)	6 (9.8)	
	Unadjusted at all	4 (1.6)	4 (6.6)	1 (1.6)	2 (3.3)	1 (1.6)	

\*Fisher's exact test was used instead of  $\chi^2$  test.

부 영역 중 탈진은 3학년이 1, 4학년보다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무능력과 냉담은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느끼고 있었고, 반감은 3학년이 1학년과 4학년보다, 2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다(Table 3).

### 3)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82.60 \pm 17.50$ 이었고, 학년별로 1학

년  $79.33 \pm 14.32$ , 2학년  $82.17 \pm 17.89$ , 3학년  $89.11 \pm 17.72$ , 4학년  $79.80 \pm 18.42$ 으로, 전반적인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16, p=.007$ ). 사후 검정결과 3학년이 1학년과 4학년보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 중 장애문제와 학업문제 스트레스는 3학년이 1, 2, 4학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교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Table 4).

**Table 2.**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by Grade

(N=247)

Variables	Total	Freshmen <sup>a</sup> (n=61)	Sophomores <sup>b</sup> (n=64)	Juniors <sup>c</sup> (n=61)	Seniors <sup>d</sup> (n=61)	F	p	Scheffé
	M±SD	M±SD	M±SD	M±SD	M±SD			
Academic engagement	48.82±14.56	48.82±14.23	48.77±12.22	44.80±12.60	52.90±17.70	3.08	.028	c < d
Vigor	16.37±5.24	16.51±4.83	16.27±4.77	15.05±4.78	18.67±6.24	2.65	.050	c < d
Dedication	14.92±4.77	15.03±4.85	14.97±4.15	13.47±4.33	16.21±5.41	3.52	.016	c < d
Immersion	16.73±5.37	16.74±5.38	16.70±4.38	15.40±4.63	18.08±6.67	2.61	.053	

Age was controlled as a covariate.

**Table 3.** Comparison of Academic Burnout by Grade

(N=247)

Variables	Total	Freshmen <sup>a</sup> (n=61)	Sophomores <sup>b</sup> (n=64)	Juniors <sup>c</sup> (n=61)	Seniors <sup>d</sup> (n=61)	F	p	Scheffé
	M±SD	M±SD	M±SD	M±SD	M±SD			
Academic burnout	70.26±14.55	66.55±12.39	72.46±13.60	76.22±13.68	65.68±16.02	7.83	< .001	a, d < c
Exhaustion	15.71±3.73	14.11±3.52	15.92±3.42	17.57±3.48	15.20±3.71	10.35	< .001	a, d < c
Inability	12.36±3.94	11.34±3.69	12.95±3.92	13.44±4.09	11.66±3.75	4.18	.007	a < c
Antipathy	16.01±4.63	15.41±4.35	16.70±4.30	17.73±4.43	14.15±4.74	7.49	< .001	a, d < c d < b
Nonchalance	11.93±3.81	11.30±3.12	12.09±3.76	13.31±3.84	10.97±4.10	4.78	.003	a < c
Anxiety	14.29±4.27	14.38±4.36	14.79±4.18	14.27±3.82	13.70±4.71	0.69	.559	

Age was controlled as a covariate.

**Table 4.** Comparison of Stress by Grade

(N=247)

Variables	Total	Freshmen <sup>a</sup> (n=61)	Sophomores <sup>b</sup> (n=64)	Juniors <sup>c</sup> (n=61)	Seniors <sup>d</sup> (n=61)	F	p	Scheffé
	M±SD	M±SD	M±SD	M±SD	M±SD			
Stress	82.60±17.50	79.33±14.32	82.17±17.89	89.11±17.72	79.80±18.42	4.16	.007	a, d < c
Economic problem	10.90±4.08	10.56±3.49	11.45±4.83	10.64±3.71	10.93±4.17	0.61	.606	
Future problem	15.11±4.41	13.48±3.75	14.86±4.38	17.14±4.95	14.95±3.70	7.89	< .001	a, b, d < c
Value problem	8.63±3.17	8.44±3.01	8.67±3.33	9.35±3.55	8.03±2.63	1.89	.131	
Academic problem	16.93±4.24	16.30±3.57	16.88±4.56	19.21±3.93	15.30±3.93	10.52	< .001	a, b, d < c
Dating problem	8.00±2.80	8.02±2.74	7.75±2.31	8.32±3.16	7.92±2.95	0.46	.711	
RP	8.50±3.28	7.68±2.33	8.61±3.51	9.44±3.75	8.24±3.16	3.18	.025	a < c
RFM	8.40±3.48	8.77±3.35	8.03±3.18	8.65±4.17	8.18±3.13	0.66	.579	
RF	6.08±1.99	6.08±1.94	5.90±1.69	6.10±2.18	6.26±2.15	0.32	.811	

Age was controlled as a covariate; RP=Relationship with professors; RFM=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RF=Relationship with friends.

Table 5. Comparison of Social Support by Grade

(N=247)

Variables	Total	Freshmen (n=61)	Sophomores (n=64)	Juniors (n=61)	Seniors (n=61)	F	p
	M±SD	M±SD	M±SD	M±SD	M±SD		
Social support	49.61±8.17	49.25±7.60	49.31±8.79	49.59±8.40	50.30±7.98	0.63	.598
Family support	16.57±3.20	16.25±2.96	16.53±3.51	16.76±3.31	16.74±3.01	0.34	.799
Friend support	16.49±3.04	16.36±2.86	16.39±3.06	16.35±3.43	16.87±2.78	0.41	.743
Meaningful person support	16.57±2.95	16.64±2.84	16.39±3.08	16.56±3.10	16.69±2.81	0.12	.947

Age was controlled as a covariate.

####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은 49.61±8.17이었고, 학년별로 1학년 49.25±7.60, 2학년 49.31±8.79, 3학년 49.59±8.40, 4학년 50.30±7.98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63, p=.598). 또한, 하부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 3.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는 학업소진과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34, p<.001; r=-.19, p=.003, respectively)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와 약한 정적 상관관계(r=.29, p<.001)가 있었다. 학업소진은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52, p<.001),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28, p<.001).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0, p<.001). 즉, 학업열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소진과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높았고, 학업소진은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학업열의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Table 6).

##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업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업열의는 총점 119점 중 48.8점으로 중하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에 대한 연구가

없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 충족 여부 등이 학업열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되며,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44.8점으로, 4학년보다 낮았다. 이는 3학년이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며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신체적·심리적인 부담과 임상실습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대비 학업열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적응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무력감을 경험하며[18], 특히 3학년은 강의실에서 임상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19]를 지지하였다. 하부 영역에서는 활기와 헌신 영역에서 3학년이 4학년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몰두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임상실습 병행과 적응부족으로 인한 피로와 부담감이 학업열의에 대한 활기와 헌신 정도를 감소시키지만,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에 대한 집중을 의미하는 몰두 영역에서는 4학년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3학년생이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4학년생과의 임상실습 멘토링 제도나 지도교수 및 교내 상담소를 활용한 상담 강화 등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3학년생은 처음 교과과정에 포함된 임상실습으로 인하여 임상실습 시간 외 학업열의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열의 저해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1학년과 2학년은 3학년 및 4학년과 학업열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전공학습 및 임상실습 여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취업 등을 고려해 학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정도가 유사했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또한 타 학과 대비 학업에 대한 부담과 경쟁이 심한 간호학과의 특성 상[4], 저학년부터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Table 6.** Correlation among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N=247)

Variables	AE	AE 1	AE 2	AE 3	AE 4	AB	AB 1	AB 2	AB 3	AB 4	S	S 1	S 2	S 3	S 4	SS	SS 1	SS 2	SS 3	SS 4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AE	1																				
AE 1		1																			
AE 2			1																		
AE 3				1																	
AE 4					1																
AB	-.34***					1															
AB 1		-.02					1														
AB 2			-.25*					1													
AB 3				-.33**					1												
AB 4					-.53***					1											
S	-.19**					.52***					1										
S 1		.04					.41**					1									
S 2			-.09					.45***					1								
S 3				-.29*					.46***					1							
S 4					-.24					.61***					1						
SS	.29***					-.28***					-.40***					1					
SS 1		.15					-.28*					-.26*					1				
SS 2			.11					-.17					-.38**					1			
SS 3				.42**					-.31*					-.46***					1		
SS 4					.46***					-.41**					-.50***					1	

\* $p < .05$ , \*\* $p < .01$ , \*\*\* $p < .001$ ; AE=Academic engagement; AB=Academic burnout; S=Stress; SS=Social support; 1=Freshmen; 2=Sophomores; 3=Juniors; 4=Seniors.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타 대학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소진은 총점 125점 중 70.3점으로 중상 수준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소진 정도가 중 정도나 중하 정도로 나타난 결과[6,20]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소진만을 측정함으로 인하여, 정서적 고갈이나 비인격화 등 타 특성들을 포함한 소진 정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76.2점으로, 1학년과 4학년보다 높았다. 이는 3학년이 본격적인 전공수업 및 임상실습이 처음 시작되는 학년으로서, 전공수업과 임상실습 병행의 어려움 등으로 교양수업 위주의 1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대비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간호대학 1학년생의 대학생 활 중 감정 소진이 3학년생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20]와 임상실습 첫 학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21]와 유사하였다. 또한 3학년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임상실습 교육체계가 부족할 상황에서 실습 시 위협감을

느끼며[22], 간호지식과 술기부족으로 인해 임상실습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3], 타 학년 대비 학업소진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부 영역 중 탈진과 반감은 3학년이 1,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무능력과 냉담은 3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느꼈으며, 반감은 2학년이 4학년보다 높았다. 대부분의 하부 영역에서 3학년의 소진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열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이론수업과 임상실습 병행으로 인한 부담과 적응 부족으로 인하여 학업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Michalec, Diefenbeck과 Mahoney [20]도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첫 학년에서 피할 수 없는 소진에 직면하게 된다고 언급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3학년생은 학업열의 정도가 낮고 학업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들의 학업증진 및 전공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의 개발과 적용이 요청되어진다. 이는 본격적으로 전공 입문이 시작되는 3학년생의 간호학에 대

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전공 지향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예비 간호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학년과 3학년은 학업소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2학년부터 전공기초 과목과 기본간호학 등의 일부 전공과목이 시작되면서 간호학 입문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려된다. Rudman과 Gustavsson [8]은 학업소진이 수업 참여를 저하시키고 직업 준비를 방해할 뿐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전이나 사회화의 저해 요인임을 언급하였으므로, 학업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저학년에서 습득된 학업 능력은 간호학에 대한 적응 및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고학년에서의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저학년 때부터 전반적인 간호학 교과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 학생용 포트폴리오 작성 및 전공 관련 봉사활동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총점 200점 중 82.6점으로 중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중정도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6,23,24]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연구에서 남자대학생 47점, 여대생 53.1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25]. 이는 타 전공과 달리 간호대학생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며, 과중한 학습량 뿐 아니라 임상실습 중 환자 간호에 대한 책임과 역할갈등 및 지식 부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원에 노출되기 때문에 파악된다 [3]. 학년별로는 3학년이 89.1점으로, 1학년과 4학년보다 높았다. 이는 3학년이 학업열의 저하와 학업소진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주로 학교생활로 인해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한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23]를 지지하였다. 3학년생은 타 학년 대비 하부 영역 중 학업문제와 장래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이론수업과 임상실습과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구체화와 동질화를 통하여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숙고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많은 과제와 과중한 시험공부,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간호대학 3학년생에게 유의미한 스트레스원으로 도출된 결과[23]를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 Goh [23]는 학년마다 교과과정 및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각각의 학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타 전공 대학생이 취업 등과 관련해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았던 반면, 간호대학생은 취업에 대한 어려움보다 학업과 실습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 특히 3학년생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26]와 일치하였다. 또한 1학년생 대비 교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전공수업과 임상실습 시작 및 취업준비 등으로 교수와의 관계형성이 강화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간호학 교과과정은 교수가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측면이 부족한 편이며[27], 진로지도 시 인생 진로에 대한 선택보다는 주로 취업 기관의 채용기준 전달 등 실제적인 취업 지도를 함으로 인해서[2], 학과 부적응을 경험하거나 전반적인 취업 준비가 부족한 학생은 교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대인관계 중 교수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24]와, 지지원으로 교수보다는 부모나 친구 및 주요 타인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결과[27]와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이 요청되며, 향후 교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탐색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교수는 학생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고, 엄격한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기도 하다[27]. 그러므로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교수와의 상담기회를 강화하여 학업과 장래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소의 활용을 권장하거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활용하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학업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는 대인관계를 저해하고 간호학에 대한 부적응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교과 외 활동으로 멘토링 제도나 학습동아리 활동 등 학습과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간호대학생의 소진을 낮추며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므로, 교수자는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나 교수자의 피드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27].

한편 2학년과 3학년은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학업소진과 마찬가지로 간호학 입문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이 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고려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습 학년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기는 하지만 학년별로 차이가 없었던 결과도 보고되었으므로[26],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별 건강상태나 적응 정도에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구 및 주요



타인에게서 받는 지지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간호대학생은 학업 중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지만 상황에 맞는 지지를 통해서 유용한 도움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7], 문제에 봉착 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특히 스트레스 사건과 파생 결과 간의 매개요인으로서 대인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한 물질적, 정신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므로[29],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친구나 선배, 교수 등 지지체계로부터의 지지와 격려가 간호학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4], 가능한 여러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활용토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변수 간 상관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고 학업소진과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았고, 스트레스가 심하고 학업열의와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았다. 기존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적응을 도모하였고[4, 27],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28]. 한편 간호학 외에 심리학과 교육학, 법학 등 타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8]. 또한 남녀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7]. 그러므로 특히 학업소진과 스트레스가 높은 2, 3학년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회적 지지의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개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리적, 생리적 및 행동적인 영향을 유발하므로[29],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이 능동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대응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네 변수 간의 상관성은 대부분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학년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 중 3학년생의 학업열의 정도가 낮고 학업소진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학년생의 학업열의 정도와 학업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가 3학년생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2학년생도 상대적으로 많은 학업소진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특히, 취업과 졸업에 직면한 4학년생보다 저학년인 2학년생의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실습 시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3학년생과 아울러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증진 및 대학생활 적응

도모를 위해서는 학년별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2학년생은 신입생 때보다 감소한 교내외의 사회적 지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인식 및 학업에 대한 부담 증가로 '2학년 슬럼프(sophomore slump)'를 경험한다[30]. 간호대학생도 2학년 때 민감성과 슬럼프 등의 정서가 증가하며 타 학년보다 부모와의 대화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특히 2학년생은 교수가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긍정적인 대응기전을 발달시키도록 지도해야 할 시기이다[27]. Lee와 Kim [21]도 임상실습 첫 해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나 문제해결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선호한 반면, 다음 해에는 다양한 임상상황 경험으로 스트레스는 낮으나 회피적인 대처가 높게 나타나는 등 학년별 차이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학업소진과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2, 3학년에게 중점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시기는 전공학습과 임상실습이 시작되며 간호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과 예비 간호사로서의 자아가 구체화되는 시기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학생 선배나 졸업 간호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간호인으로서의 비전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년별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정도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년별 학업 관련 특성을 이해하고, 학업증진 및 스트레스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주 대상 학년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학업성취 및 스트레스 관리, 전공 적응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자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습성과 달성 및 대학생활 적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 중 2, 3학년의 학업소진과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학업열의 정도는 낮고 학업소진 정도는 높게 인식하였으므로, 학업열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인식을 개선하고 소진 정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열의, 학업소진,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학년별로 효율적인 중재의 시행 및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간호학 교수자들에게 효율적인 학생지도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전공수업과 임상실습 등 교과과정 운영 시에 고려해야 할

학년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교과과정 운영의 토대를 제시하였으며, 전공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여자 간호대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므로 연구결과의 적용에 제한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대상자가 일 지역 간호대학생이므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적 및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연구를 통하여 임상 실습을 시작하는 3학년의 학업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수, 임상지도자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이해관계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Lee SJ, Yu JH. The medit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8;22(3):589-607.
2. Cho H, Lee K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6; 28(2):136-173.
3. Beck D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1;30(3):127-133.
4. Bae JI. A experience of the nursing student: A phenomen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99;8(2):256-267.
5. Kim KH, Kwon HJ, Yeoum SG. A study exhaustion experiences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Nursing*. 1997;10(2):241-257.
6. Ko CM.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Nursing*. 2015;28(3):239-247. <https://doi.org/10.15434/kssh.2015.28.3.239>
7. Yoo JH, Cho HS, Lee SH. Effects of clinical basic nursing practice of the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2;8(1):45-53.
8. Rudman A, Gustavsson JP.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12;49:988-1001.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03.010>
9. Oh WO.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ness in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2;32(5): 684-693.
10.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41:1149-1160. <https://doi.org/10.3758/BRM.41.4.1149>
11. Schaufeli WB, Martinez IM, Pinto AM, Salanova M, Bakker A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2; 33(5):464-481.
12. Schaufeli WB, Leiter MP, Maslach C, Jackson SE.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6. p. 19-26.
13. Lee YB, Lee SM, Lee JY. Development of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09;15(3):59-78.
14. Chon KK, Kim KH. Development of the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A control theory approach. *Kore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1;10(1):137-158.
15. Chon KK, Kim KH, Yi JS.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0;5(2):316-335.
16. Zimet GD, Dahlem NW, Zimet SG, Farley G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88;52(1):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17. Shin JS, Lee YB.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being of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999;37:241-269.
18. Park JW, Ha NS.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3;12(1):27-35.
19. Newton J, Billett S, Jolly B, Ockerby C. Lost in translation: Barriers to learning in health professional clinical education. *Learning in Health and Social Care*. 2009;8(4):315-327. <https://doi.org/10.1111/j.1473-6861.2009.00229.x>
20. Michalec B, Diefenbeck C, Mahoney M. The calm before the storm? Burnout and compassion fatigu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3;33(4):314-320. <https://doi.org/10.1016/j.nedt.2013.01.026>
21. Lee HS, Kim EJ.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8;14(1):5-13.
22. Montgomery P, Killam L, Mossey S, Heerschap C. Third year nursing students' viewpoints about circumstances which threaten safety in the clinical setting. *Nurse Education Today*. 2014;34: 271-276. <https://doi.org/10.1016/j.nedt.2013.09.019>
23. Goh JK. The differences of stressors at grade and ways of coping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0;5(2):79-86.
24. Park P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type and self-

- esteem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Nursing*. 2016; 29(1):1-10. <https://doi.org/10.15434/kssh.2016.29.1.1>
25. Kim JH.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2016;17(1):81-100.
26. Cha NH.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3;19(2):177-185. <https://doi.org/10.14370/jewnr.2013.19.2.177>
27. Reeve KR, Shumaker CJ, Yearwood EL, Crowell NA, Riley JB.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2013; 33:419-424. <https://doi.org/10.1016/j.nedt.2012.11.009>
28. Karimi Y, Bashirpur M, Khabbaz M, Hedayati AA. Comparison between perfectionism and social support dimensions and academic burnout in student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014; 159:57-63. <https://doi.org/10.1016/j.sbspro.2014.12.328>
29. Lee MR, Cho MK, Chung HS. A model for nursing students'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0;11(2):321-331.
30. Gahagan J, Hunter MS. The second-year experience: Turning attention to the academy's middle children. *About Campus*. 2006; 11(3):17-22. <https://doi.org/10.1002/abc.168>